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6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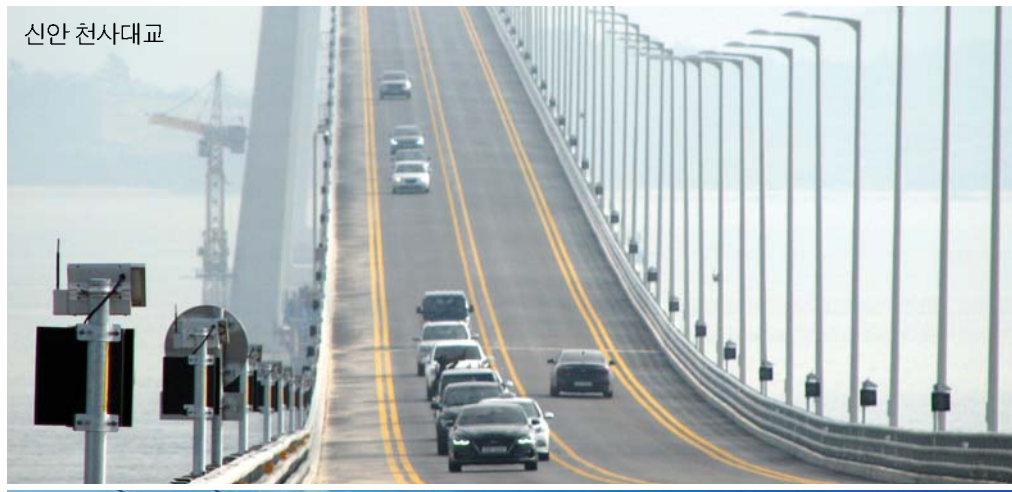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12일 (음력 1월 8일) 화요일

전남 '서남권' 6천만 관광객 시대 돌파구 기대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전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관광객 6000만 명 유치를 선인한 가운데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남권에서 전남 관광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연 전남의 관광객은 절반 정도가 동부권에서 집중할 정도로 시·군별 편중 현상이 컸다.

관광객 유치 현황을 보면 여수시가 가장 많은 1508만 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순천시 907만 명, 담양군 279만 명, 목포시 259만 명, 구례군 249만 명 등의 순이었다.

주요 관광지별로는 순천만 국가정원 612만 명,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357만 명, 여수 오동도 315만 명, 여수 돌산공원 266만 명 등으로 여수와 순천 광양(177만 명) 등 동부권 3개 시만해도 관광객 절반인 2500만 여명을 유치했다.

반면, 목포와 해안(43만명), 진도(50만명), 신안(121만명), 무안(71만명), 영암(94만명) 등 서남권은 동부권에 비해 1/4수준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그동안 서남권은 교통편이 불편하고 랜드마크형 볼거리를 갖추지 못하면서 동부권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난 2017년 전남 5천만 관광객 중 절반 '동부권' 치중 천사대교·케이블카·근대역사문화공간 전환점 기대 "다양한 해양관광 연계 개발해 국제 거점 관광지 육성"

하지만 올해부터 서남권이 전남 관광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안 천사대교와 목포케이블카 등이 들어 서면서 획기적인 관광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이미 연도된 신안 중부권 주요 5개 섬(자은, 임태, 안좌, 팔금, 자라)과 압해도가 연결돼 목포 등 육지와와의 왕래가 자유스럽게 됐다.

천사대교는 그 자체가 훌륭한 랜드마크에다, 전남 서남권 관광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해양레저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서남권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 개통하는 목포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역시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총연장 3.23km(해상 0.82km, 육상 2.41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며 다음달 시운전을 시작해 4월에 본격 개통된다.

유달산과 다도해, 항구 등 다양한 비경을 조망할 수 있고 해상을 건너는 메인타워 높이가 155m로 여는 케이블카에서 느끼지 못하는 스릴감을 선사하게 될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탑승시간만 왕복 40분에 이른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목포 근대역사문화유산 공간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곳은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408㎡로, 1897년 개항 이후 격자형 도로망을 따라 목포가 근대도시로 발전한 과정과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목포의 시작을 알리는 목포진지를 비롯해 옛 목포 일본영사관과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등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 아우르는 근대 건축 유산이 자리잡고 있다.

목포시는 원도심 일대의 근대경관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근대 문화유산의 보고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최근 열린 제1차 관광전략회의에서 서남권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목포 고향도 해상테마파크 신안 자은 해양관광단지 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 명소 육성 ▲공공 홍보·마케팅,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 운영으로 서남권 관광협의체 운영 활성화 ▲목포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무안 생태개발센터 전시시설 등 서남권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 예타면제 선정 등 서남권이 관광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며 "서남해안의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 개발해 서남권을 환태평양시대 국제 거점 관광지로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망언

박원순 서울시장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모독' 파문과 관련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망언은 망언일 뿐이며 역사 왜곡은 결코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과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모두 비판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일본이 일제치하에 벌인 일본군 성노예 만행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망언이라고 부르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관련 인사의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박원순



나경원



박원순

한전공대 설립 '최종 용역' 내달말 완료...착공 2020년 2월 목표

한전 공과대학(일명 캠퍼스·Kepco Tech) 설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공대 인지가 확정된 가운데 후속 조치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1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오는 2022년 3월 조(부분)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 늦어도 2020년 2월 내로 캠퍼스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지난해 9월 대학 설립 기본 방향을 담은 '중간 용역 보고서'에 이

어 오는 3월 말까지 전문 용역사 'A.T.Keamey'(A.T.커니)를 통해 최종 용역 결과물을 보고 받는다.

최종 용역 보고서에는 '학교·교과 체계', '캠퍼스 건축 방향' 등이 포함된다.

한전은 용역사의 최종 보고서 제안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체 추진 계획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상반기까지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전은 용역사의 최종 용역 결과물 보고에 앞서 오는 3월 중으로 지자체(전남도·나주시)와 실시 협약을 먼저 체결할 예정이다.

실시 협약은 전남도가 한전공대 설립 지원을 위해 꾸릴 예정인 전남 태스크포스(TF) 구성 완료 시점에 맞춰 체결한다.

하지만 협약서 안에 전남도와 나주시의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가 명시되는 만큼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만

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공대 조기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진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캠퍼스 착공 예정 시기는 지자체가 얼마만큼 신속하게 '부지 매입'을 비롯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앞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도 있다.

한전 측은 오는 2022년 3월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늦어도 2020년 2월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돼야 캠퍼스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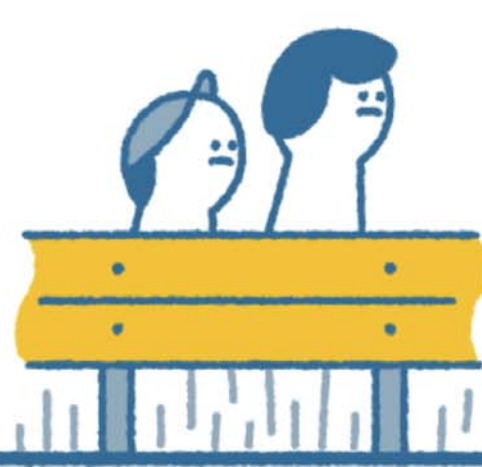
신봉우 기자

사람이 우선의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